

KT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 주목 할 이유



윤위중의
잠시 살펴

KT가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KT의 전·현직 임원들이 법인카드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속칭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을 만들어 이 돈을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냈다는 게 요지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이 내사단계에 들어가면서 알려졌다. 일부 매체에서 간헐적으로 보도가 됐지만 내사 단계여서 대다수 매체들은 기사로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30일 저녁 유력 지상파에서 이 내용을 다루자 바로 다음날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경찰이 KT 본사와 광화문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받은 걸 보면 충분한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공개롭게 압수수색 전달 밤에 KT의 혐의를 다룬 기사가 전파를 뒀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만약 KT가 임원들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특히 '왜 지금 시점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지울 수 없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황창규 회장을 향한 것이다. 고위직 임원들 수십명이 특정 국회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자발적으로 정치헌금을 냈을지 만무하고, 당연히 '누군가' 지시를 했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수사는 황 회장의 퇴임을 겨냥한 일종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많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과거 정권들과 똑같은 '구태'가 재연된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실제로 그간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인물을 앉히려 한다는 주장이 수시로 제기돼 왔다. 황 회장은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며 '적폐'로 분류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 이면에는 새 정부에 맞는 사람을 앉히고, 그걸 계기로 집권에 성공한 지지자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며 '보은'을 하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적폐'로 규정된 과거 정권

들도 늘 그래왔다. KT는 언제나 새 정권의 '먹잇감'이 돼 왔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KT 회장에 임명된 이석채씨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교체설이 나돌다가 결국 검찰 수사를 못이기고 2013년 자진 사퇴했다. 말이 자진 사퇴지, 강제로 물러난 것과 다를 없다. 이전 회장은 KT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퇴임했기 때문이다. 이석채 이전 CEO였던 남중수 전 사장 역시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직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되며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KT는 과거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한국통신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2002년 (주)케이티(KT)로 상호를 변경한 뒤 그해 5월 정부가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완전 민영화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KT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CEO로 내려오는 '구습'이 거듭되고 있다.

KT가 법을 어겼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의도된 것이라면 적폐청산이란 말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롯데칠성, 천사무료급식소에 '나눔저금통' 성금 전달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전국 천사무료급식소'를 찾아 '나눔저금통'을 통해 모은 성금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눔저금통 전달식은 롯데칠성음료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외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칠성음료 성기승 커뮤니케이션팀장(오른쪽)과 전국천사무료급식소 김진옥 과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한화투자증권, STEPS '밀레니얼 멘토스' 1기 출범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30일 간편투자 앱 'STEPS'의 주요 고객인 20~30대의 니즈 파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STEPS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STEPS Mentors 제 1기인 '밀레니얼 멘토스'를 출범했다. STEPS Mentors는 매년 개최될 STEPS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로 이루어진 대학생 모임이다. 이들은 개인당 투자금을 100만원씩 지원받아 약 6개월 간 한화투자증권 STEPS와 디지털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주식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계획이다. /한화투자증권

상생 바람 부는 프랜차이즈업계



기자 수첩
박인웅
(유통&라이프부)

지난 한 해 동안 통행세, 성추행 등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프랜차이즈업계에 상생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가맹본부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맹점 물품 공급가, 로열티를 낮추고, 필수품목의 수를 줄이는 등 상생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신제품 분사 마진을 완제품은 5%, 휴면 반죽 제품은 7% 줄였다. 가맹점이 본사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도 13% 축소했다.

경쟁업체인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푸레쥬르도 2월 15일부터 필수품목 중 빵 반죽 등 핵심재료 300여개의 가맹점 공급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해 공급하기

로 했다. 이는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푸레쥬르가 이같이 결정 한 이유는 임대료 상승 및 경기침체와 구인난 등 경영환경이 어려운 점주와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다.

또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10년의 두배인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도 가맹점을 위한 상생 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고 가맹점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를 내린 가맹본부도 있다. 새마을식당, 뽕다방 등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10%, 김밥체인 '바라다김밥생'은 14%를 내렸다.

이처럼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상생안이 마련되면서 다른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상생 행보 동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를 넘어 숙명과 같은 것"이라며 "최근 편의점업계는 상생 펀드 조성, 최저수입 보장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제빵업체도 구입 강제 품목 수의 축소 및 공급 가격 인하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상생협약 모범사례에 가맹본부를 추가해 치하하는 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작년에 발표한 자율 실천 방안을 잘 이행하면 협약이행 평가에서 가맹본부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이행 평가 요소로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용인되고 묵인되었던 프랜차이즈업계가 '갑질'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상생이 정착되어야 한다. 다만 상생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parkiu7854@

세계 ITU 통신전문가, SKT '티움' 방문한다

첨단 5G 기술 체험 예정

SK텔레콤은 ITU 이동통신 표준화회의(ITU-R WP5D)에 참석하는 세계 각국 ICT 전문가들이 2월 1일부터 3일까지 ICT 체험관 '티움'과 서울 시청광장에 마련된 'ICT 이글루'를 방문해 첨단 5G 기술을 체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ITU-R WP5D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산하 회의체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및 표준화 로드맵 수립 등을 주관한다.

이날부터 2월 7일까지 서울에서 29차 회의를 갖고, 5G 표준화를 위한 기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ICT 전문가들은 '티움'과 'ICT 이글루'에서 ▲무안경 5G VR 기술 ▲5G 태블릿을 활용한 서울광장-을지로 간 360 라이브 영상통화-스트리



SK텔레콤 ICT 체험관 '티움'의 현재관의 모습. /SK텔레콤

밍 ▲5G V2X(차량통신기술) ▲스마트 홈 가전을 음성으로 제어하는 인공지능 기기 등을 직접 체험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인사

- ◆ **국민연금공단** ◇부서장 전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황정규 △복지사업담당장 김창균 △포천철원지사장 이은상 △관악지사장 류승훈 △동작지사장 권대식 △양천지사장 이기향 △춘천지사장 최중혁 △홍천지사장 이만현 △강릉지사장 김철호 △삼척지사장 주종규 △원주지사장 박명철 △공포의왕지사장 최호열 △경기광주지사장 조혜연 △이천여주지사장 이규호 △광명지사장

- 손정락 △시흥지사장 임계홍 △북대전지사장 유인규 △증평지사장 박대식 △충주지사장 주상돈 △공주부여지사장 최재봉 △세종지사장 김정연 △동광주지사장 장선주 △진안지사장 박영현 △정읍지사장 강연 △남원순창지사장 김영빈 △나주시지사장 노용균 △목포지사장 김병용 △해남지사장 김원수 △동대구지사장 박경석 △경산청도지사장 전정환 △경주영천지사장 광춘석 △문경지사장 김형동 △구미지사장 광기정 △중부산지사장 김두용 △서부산지지사장 장경수 △북부산지사장 허기도 △부산상산지사장 박하정 △동래급정지사장 김진우 △동울산지지사장 박판윤 △마산지사장 문영안 △거창지사장 이상선 △양산지사장 이재용

- ◆ **키움증권** △대표 직무대행 윤수영 부서장
- ◆ **한국시티은행** (승진) ◇본부장 △WM 센터본부장 김지강 △영업추진본부장 김용준
- ◆ **MBC** (목포MBC) △사장 김영석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장 이계임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식품유통연구센터장 김경필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환경·자연연구센터장 정학균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농정연구센터장 김태훈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성주인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 허장 △글로벌협력연구본부 통상·동북아연구센터장 문한필 △글로벌협력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장 한석호 △농업관측본부장 박기환 △농업관측본부 원예실장 최병욱 △농업관측본부 축산실장 우병준 △농업관측본부 모형정확팀장 서홍석 △미래정책연구실장 김용렬
- ◆ **울산항만공사** (전보) ◇1급 △전략기획팀장 이형락 ◇2급 △감사팀장 박봉운 △재무경영팀장 신광철 △사회기치팀장 김희경 △항만운영팀장 이동만 △안전환경팀장 구한모 ◇가급 △인사노무

- 팀장 최철준
- ◆ **국민대** △교학부총장 이채성 △대학원장 박찬량 △사회과학대학장 김도연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박정원 △조형대학장 겸 디자인대학원장 강연미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권순범 △건축대학장 이경훈 △자동차융합대학장 겸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장 겸 자동차산업대학원장 박기훈 △교양대학장 이장연 △교육대학원장 이수진 △행정대학원장 최진식
- ◆ **한국외대** △부총장(글로벌) 조기성 △산학연계부총장 김종석 △정치행정전문대학원장 이상환 △KFL대학원장 김재욱 △국제지역대학장 김응운 △동유럽대학장 김정환 △통번역대학장 정호정 △경상대학장 김문현 △교무처장(글로벌) 전종섭 △학생·인재개발처장(대학창조일자리본부장)(서울) 김봉철 △학생·인재개발처장(대학창조일자리본부장)(글로벌) 김수만 △행정지원처장(글로벌) 전준근 △입학처장 김민희 △정보지원처장 김동식 △사업지원처장 권원순 △연수평가원장 조성은

부음

- ▲김명숙씨 별세, 손영선(신세계백화점 상품개발실 상무)씨 모친상 = 30일 서울성모장례식장 5호, 발인 2월 1일 오전 9시 15분. 02-2258-5940
- ▲김진희(전 광주 남부경찰서장)-문희(사업)-재훈(서울 남대문경찰서 보안계장)-재신(연남스퀘어 광주 전남취재본부 기자)씨 모친상 = 31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VIP장례타운 301호, 발인 2월3일 오전 9시. 062-521-4444
- ▲황병기(이화여대 명예교수)씨 별세,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씨 장인상 = 31일 별세,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월 2일. 02-3010-2000
- ▲김종철씨 별세-성호진씨(한국예탁결제원 펀드 업무부 팀장) 장인상 = 1월 29일 을지병원, 발인 1일 오전 10시 30분. 02-970-8444
- ▲강갑용씨 별세-강종호씨(부산 장림우체국) 부친상-안봉모씨(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 장인상 = 1월 30일 부산 동구 인창요양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30분. 051-464-585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창규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